

202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Q&A

| 분야 | NO | 주요내용 |
|--------|----|---|
| 국제공동제작 | 1 | Q. 국내 자부담, 해외 자부담, 해외 제작비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자부담은 현금으로 투자되는 금액으로 국내 자부담은 국내 사업자, 해외 자부담은 해외 공동제작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중간보고시 입금완료)으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작비는 해외 공동제작사가 사용하는 금액(중간보고시 자금확인)으로 해외 사업자가 자체 사용하고 프로그램 제작 완료 후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Q. 동일한 기관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접수 할 수 있나요? A. e-나라도움에서 1개 사업자 당 분야별(국제공동제작, OTT제작지원, 공공장편, 단편, 우리말더빙, 협력협정이행) 1편 신청가능하며, 분야별 1편 선정 가능 합니다. |
| | 3 | Q. 제작 및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송출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3년 4월에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는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사업비 사용은 2022년 12월 31일에 마감되며 이후 사용은 자체비용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
| | | Q. 독립PD, 제작사, 방송사, OTT 플랫폼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독립PD, 제작사, 방송사, OTT 플랫폼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독립PD)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를 의미합니다. - (제작사)는 법인사업자 를 의미합니다. - (방송사)는 방송법 제2조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에 따라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방송사업자이며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은 제외됩니다. - (OTT 플랫폼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예:시즌, 웨이브, 왓챠, 티빙, 네이버TV, 카카오TV 등)를 의미합니다. |
| | 5 | Q. 사업자투자비는 어떤 내용인가? A. 사업자투자비는 국고지원금의 100% 이상을 매칭 이며, 이 중 20%~40%는 자부담금(현금만 인정)이며, 60%~80%는 사업자제작비(현금과 현물 모두 인정) 입니다. 또한, 사업자투자비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분담할 수 있으며, 분담률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국고지원금이 지원 됩니다. - 국고지원금과 자부담금(20~40%)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집행 - 사업자제작비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금액 임. |
| | | |
| OTT특화형 | 4 | |
| | 5 | |

| 분야 | NO | 주요내용 |
|----|----|--|
| | 6 | Q. 기획개발 참여 신청 시 대본과 트레일러 영상을 제출해야 하나요? |
| | | A. OTT 기획개발 1단계 및 2단계 참여 신청 시 신청서와 자유 양식의 설명 자료만(선택) 을 제출합니다. 단, 최종 OTT 콘텐츠 제작지원 발표평가에는 발표자의 필요에 따라 트레일러 영상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7 | Q. 방송사나 제작사가 기획개발 1단계와 2단계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 |
| | | A. 반드시 1단계와 2단계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기획안을 찾고 있다면 1단계 컨소시엄사로 참여를 하고, 이미 IP를 보유하고 있다면 2단계부터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8 | Q. 제작이 완료된 작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 | A.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방영 중 (방송사, OTT 등 모든 매체)인 작품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
| | 9 | Q. 콘텐츠 제작 완료 후 해외 OTT 플랫폼사 및 방송사에 판매가 가능한가요? |
| | | A.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서비스 개시 후 최소 2년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OTT 플랫폼사에 서비스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OTT 플랫폼사 또는 방송사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 10 | Q.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
| | | A.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반드시 국내 OTT 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관사-참여기관 구성 방법에는 별도의 제한사항 없이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
| | 11 | Q.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반드시 분배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 A.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협업을 통한 사업자 간의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과 정부의 외주 제작시장 정책에 부합하고, 각 기관의 창의적·재정적 기여도 및 제작 참여율 등에 따른 합리적인 권리 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12 | Q. 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 | | A. 상금은 IP를 소유한 자에게 지급이 되며, 1단계와 2단계에 어떻게, 어느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최종 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독립PD, 작가】 1단계 컨소시엄 구성 후 2단계에서 피칭을 하면 5백만원, 최종 발표평가까지 피칭을 하면 1천만원 상금 수여 |

| 분야 | NO | 주요내용 |
|----------------|----|--|
| | | <p>※ 단, 특정 회사 소속의 독립PD 및 작가가 소속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는 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p> <p>【제작사, 방송사】 IP를 보유한 제작사, 방송사가 2단계부터 발표자로 참여하여 OTT플랫폼사와 컨소시엄 구성 후 최종 발표평가까지 진행이 되면 1천만원 상금 수여</p> <p>※ 단, 1단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작사, 방송사는 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p> |
| 공익형 | 13 | <p>Q. 공익형 단편의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및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방송사업자는 제외” 라는 부분은 중소기업은 안된다는 것이지요?</p> <p>A. 방송법의 방송사업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KCA 공익형 부문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p> |
| | 14 | <p>Q. 자부담과 자체투자계획은 다른 것인가요?</p> <p>A. 사업자가 실제 돈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해서 지원금과 함께 쓰시고 정산을 받아야 하는 자부담금과는 다르게, 자체투자계획은 신청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투자를 계획으로 제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p> |
| | 15 | <p>Q. 차세대미디어주간 송출이 조건인데 기간이 언제인가요?</p> <p>A. 현재 `22.10.31.(월) ~ `22.11.4.(금)으로 예정되어 있고, 추후에 안내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에 본방 또는 재방으로 송출하시면 됩니다.</p> |
| 방송통신 협력협정이행 | 16 | <p>Q. 협력협정이행국 외에 다른 나라와 공동제작을 계획 중에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p> <p>A. 공동제작협정국이 포함되는 국가가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며, 다른 분야(국제공동제작 분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
| | 17 | <p>Q. 공동제작협정국과 함께 공동제작협정국이 아닌 나라를 포함하여 제작하여도 되는 건가요?</p> <p>A. 공동제작협정국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p> |
| | 18 | <p>Q. 공동제작 국가가 1개국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p> <p>A. 3개국 미만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p> |